

당신엔 애견...행인엔 맹견? '펫티켓' 실종에 불안한 거리

광주·전남 개 물림 환자 매년 150건
목줄·입마개 등 소홀해 곳곳 마찰도
고창·군산·광주 등 사고 끊이지 않아
최시원 반려견에 물린 사망사건 계기
맹견관리법 등 도입 견주 책임 강화를



주민 이종민(40)씨는 최근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로 산책을 갔다가 깜짝 놀랐다. 개 주인이 호수 산책로 한쪽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 셰퍼드 4마리를 풀어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개 주인이 자신과 10m 정도 떨어진 곳에 대형 개들을 풀어놓고 딴 짓을 하고 있더라"면서 "순간 공포감에 휩싸여 왔던 길을 되돌아 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시 북구의 한 주택에 거주하는 윤모(54)씨 골목을 배회하는 애완견들이 집 대문 앞에 시도 때도 없이 툽을 배설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씨는 "개를 산책시키면 배변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일 주일에 한 번 꼴로 집 앞에 개똥이 있어 불편하다"고 말했다.

반려견에 물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례도 많다. 지난 9월 전북 고창에서는 산책하던 40대 부부가 대형 잡종견 4마리에 물려 크게 다쳤으며, 군산에서는 잡종 시베리안허스키가 초등학생(9)의 팔과 다리를 물기도 했다. 무안에선 주인에게 애완견 목줄을 채우고 다닐 것을 요구하던 60대 아파트 주민이 시비 끝에 종태에 빠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유명 한식당으로 알려진 한일관 대표가 최근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자 '펫티켓'(펫+에티켓) 준수와 규제 및 안전조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공격하고, 반려견에 주인이 공격당하는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관련법을 제·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전남에서도 매년 개에 물려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고가 100건을 넘어가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 자료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자유한국당)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개에 물려 병원으로 실려간 환자는 2014년 각각 33건, 122건, 2015년 25건, 113건, 2016년 39건, 119건 등이었다.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생긴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맹견은 입마개를 채워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견주를 찾아보기 어렵다. 법을 어겨도 처벌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한데다,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온·오프라인에서는 이번 한일관 대표의 사망을 계기로 반려견 안전사고에 대해 주인에게 책임을 엄하게 묻거나 맹견을 키울 때는 사육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반려견주들의 타인을 배려하는 의식 개선도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려 견주 대부분이 "우리 아이(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멀리 있는 개만 봐도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견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맹견관리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등록된 상태다.

한편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여·53)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최시원씨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 프렌치불도그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0월6일 패혈증으로 숨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반려동물에 물린 상처 방치하면 '위험'

골수염 발전 사례도...소독 후 빨리 병원 가야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이 늘면서 동물에 물리는 이른바 '동물교상'(動物咬傷) 사고 발생이 늘고 있다. 이런 상처를 가볍게 넘겼다가는 2차 감염 등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응급처치로 소독한 뒤 병원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한 대처라고 조언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람이 개나 고양이의 송곳니에 물리면 관통상으로 힘줄과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상처가 팔뚝을 건드리면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세균이

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도 크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아이, 만성질환자들은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지난 박테리아에 더욱 취약하다.

특히 조그맣고 귀여운 개나 고양이가 물거나 핏자국이 원래 상처는 작더라도,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이빨에 있는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상처 부위에서 증식할 수 있고 다른 세균·박테리아에 추가로 감염되는 '2차 감염'의 우려도 있으므로 방심해서는 안된다. 2차 감염은 반려동물의 종·품종·체격을 가리지 않고 생긴다.

특히 요즘 반려동물은 대부분 예방 접

종을 받는다는 생각에 반려동물이 살짝 물거나 핏자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과신은 금물이다.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한테 손가락을 물린 상처가 뼈를 드러낸 연부 조직의 부종과 함께 감염성 관절염을 동반한 골수염으로 발전한 사례가 대한장상외학회에 보고된 경우도 있다.

당시 1cm 정도의 상처를 방치했던 환자는 감염으로 항생제가 듣지 않는 상태까지 악화해 결국 완치에 1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야 했다. 이 사례를 보고한 박은수 순천향대 의대 부천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평소 아끼던 애완동물로부터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방치했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매력 답사하는 한국독립PD협회 회원 한국독립PD협회 회원 등 26명이 최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들은 '다섯가지 매력이 빛나는 광주'라는 기획답사 프로그램에 참여, 주요 관광지와 문화유적을 둘러봤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제자 성추행·협박 국립대 교수 집유

여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국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장관수 판사)은 "제자들을 강제 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 국립대 한모(38)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1년 6개월 동안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학과 여학생들에게 폭언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

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죄질은 나쁘지만 추행 정도가 다른 판례에 비춰 실행에 이를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제2의 피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학생 3명을 상대로 속옷 끈을 고쳐준다는 신체 접촉을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추문을 소문낸 학생을 찾아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집 불 질러 아내·딸 사망 '고의 방화 증거 없다'

50대 남성 항소심도 무죄

아내와 다투다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형주건조물방화회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는 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집에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로 피고인이 아내와 다투는 상황에서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나, 라이터를 가지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불이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해남군 해남읍 박씨의 집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박씨의 아내(52)와 딸(16)이 화상 등을 입고 숨졌다. 박씨는 불이 나자 곧바로 빠져나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고리 사채' 물의 제명 광양시의원 항소심서 구제

광주고법 "직무 관련 아니다"

고리 사채로 물의를 일으킨 광양시의회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환 부장판사)는 "광양시의회 이모(여·45) 의원의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차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지방의회 의원 직무와 관련된 행위는 아니고, 의원 신분을 이용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6

월까지 월 이자 90만원(연 36%)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월 이자 120만원(연 48%)을 정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개인 간 거래의 법정 최고 대출 금리는 연 27.9%로 제한돼 있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3월 이 의원을 제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고추 좀 보자' 초등생 성기 만진 60대 벌금 1500만원



○...법원이 목욕탕에서 '고추 좀 보자'며 초등학생의 성기를 만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

○...22일 부산지법 형사합의1부 (임광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의 한 목욕탕 냉탕에서 수영하는 B(10)군의 성기를 2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

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임광호 판사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B군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고 설명.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스민)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스민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향,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자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